

#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 고창군, 관내 전 마을 564개소 자율 방역단 활용 일제소독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AI(조류독감)에 이어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이에 대한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AI는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최근 심각단계에서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으나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일 충북 보은 젓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지난 6일 전북 정읍의 한우 농장에서도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고창군은 긴급 우제류 농가(947호)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했고 지난 6일에는 관내 전 마을(564개)에서 자율 방역단을 활용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축종별(소, 돼지, 사슴, 염소) 임원단들과 카복방을 개설하여 공지사항이나 협조사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판 소독조를 추가 설치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7개소)에 배부되어 있는 손소독제 비치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공수의(6명) 동원령을 발령해



관할 읍·면 농가 예찰 및 방역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전국적으로 AI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에 축산농가와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철저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구제역까지 발생해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금까지 AI 차단방역을 잘 해 온 것처럼 고창군은 앞으로도 행정과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함께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

용해 AI와 구제역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우제류 사육현황은 4개 축종 947호/15만5088두(소 810호/3만4544두

돼지 35호/11만5917두 등)이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지난 달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도 우제류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70세이상 노인 목욕비 지원 '훈훈'

### 4900여명 매달 1매씩 지급

임실군이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부터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상생활 속의 훈훈한 '효심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임실읍을 비롯한 6개 지역(성수, 오수, 삼계, 관촌, 지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연간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혜대상은 이들 6개 지역 어르신 4,900여명이며, 3분기를 제외하고 1인당 매달 목욕권 1매씩이 지급된다.

임실군에는 강진면과 신평면, 운암면 등 3곳의 작은 목욕탕이 운영 중이다. 이번 목욕권 지원사업은 비용과 거리상 부담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이 힘든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권 1매당 3,500원을 지원하고, 15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조사업 형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 관내 목욕탕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준비를 진행해 왔다.

임실군의 목욕비 지원정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군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 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계면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그동안 작은 목욕탕이 멀리 있는데다가 어찌다 한 번씩 목이 찌뿌둥해서 목욕탕이라도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목욕비도 아깝고 해서 지주까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 가까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비가 지원해주고 신경써 주니까, 군민으로서 행복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J&J GRAPHIC**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지역 소식통

#### 고창군, 전통국악 상설공연 진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난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진행했던 전통국악 상설공연 '동리(桐里)와 놀다'를 올해에도 진행한다.

국악상설공연은 전통문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형유산 종목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함께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예술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통국악 상설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공연을 진행할 단체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판소리, 국악연주, 전통타악 합주, 사물놀이 등 국악과 전통인형극, 마당극 등 연극 등 전통국악장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고창군내 단체와 문화예술분야 법인 등이다.

공모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프로그램계획서, 단체 증빙자료와 공연실적자료, 저작권과 관련 있는 작품인 경우 저작권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고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063-560-246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복수초 개화

#### 이른 봄 제일먼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 로 알려져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복부사무소(소장 조승의)는 "지리산국립공원 정령치 일원에서 봄을 알리는 복수초가 첫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른 봄 제일먼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 또는 "식물의 난토"라고 불리는 복수초는 한자로 복복(福福)자에 장수수(壽壽)자, 즉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른 봄 산지에서 눈과 얼음 사이를 뚫고 꽃이 핀다고 하여

여 '얼음새꽃', '눈새기꽃' 이라고 부르며, 중부지방에서는 '복풀' 이라고도 부른다.

지리산국립공원복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손영조 과장은 "지리산에 오시면 복수초, 히어리, 생강나무 등 다양한 봄의 야생화를 관찰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눈으로만 감상해 주시고 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박종덕 국립임실호국원장 취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이곳 국립임실호국원에 취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10대 임실호국원장으로 취임한 박종덕 호국원장의 일성이다.

박 원장은 "그동안 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근무하면서 국립임실호국원이 다른 어떤 국립묘지 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도 성실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국가보훈처에서도 앞서가는 선진기관이라고 들었다"며 "임명을 받고 보니 탁 트인 공간에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가꾸어진 전경과 각 사설물들이 새롭게 보여지며, 직원들의 면면을 대하니 마음 또한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장은 "임실호국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분들이 영면해 계신 신성한 곳이다"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람 있는 일을 하니 늘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쫓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농기센터, 한식생활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오는 3월부터 남원시 특산물을 이용한 안전먹거리를 강조하고 최근 증가한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도록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1인가구인 남원시민 50명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6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남원시농업기술센터(☎063-620-8027)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3월 7일(화)부터 4월 5일(수)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또는 수요일 저녁 2회씩, 5주간에 걸쳐 총 10회 동안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지속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임실군과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회장 김경흠·임현자)는 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심민 군수, 김경흠·임현자 공동회장, 회원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신규회원 위촉장 수여, 지난해 사업성과 분석을 비롯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리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3개 분과로 구성된 주민 소통과 협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림극단 운영, 쓰레기 종량제 정착 홍보, 우리마을 영화제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림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 6기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활발한 의견 제시로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흠 회장은 "앞으로도 군민식조사,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할머니 유림극단 운영 등을 통해 참여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2017년부터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됨으로써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서,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인상률, 자가,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16년의 경우 단독가구 월 100만원에서 2017년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1,26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는 지난해 재산초과보유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이번 소득인정액이 완화됨으로써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신청절차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